

옥갓튼계집애가적막한드를에웨로히낫타나니
그를발견한차세상사람들이
어는어쩌한아해나못더라
나는강님드를에서소사낫습니다
성이무엇이며일음이무엇이냐
나는성명도몰으고아모것도몰음니다
그리하니엇찌하야우금까지살어왓느냐
내가강님드를에소사날째부터
엇썬학조가날너와서
한날애를깔어주고한날애를덥허주며
야광주를물녀주며,그리저리살녀주니
오날까지무사히살어왓습니다
년령은얼마이냐,나희도몰음니다
이러하니사람사람들이,너는나흔날을몰으니
오날을나흔날로하야일음을오날이라고하라
여러백성들에게일음을지여어더
이리저리덴기다가
박이왕의어머니백씨부인안테가니
너는오날이가안이냐,네오날이올시다
너의부모국을아느냐
몰읍니다,너의부모국은원년강이라
원년강은엇찌하야감니가
네가원년강을갈여거든
백사가의별충당우에고좌하야
글닉는동영이잇스니,그동영의게차저가서
문의하면,소망을달성할수잇을것이다
서년강가의백사가에별충당을차저가서
문외에서종일토록서잇다가
날이일모하니울성안에들어가서
과객이덴김니다하니
청의동자하나이나오면서,누구임니가못거늘
나는오날이라는사람입니다
저도령님은누구시임니가
나는장상이라고하는사람인데,옥황의분부가
여기안저언제든지글만긁어야한답니다

그런데당신은무슨일로이곳에오셨습니까
부모국이원년강이라하니
그곳으로가는길입니다.오날이가대답하니
그청의동자가친절헌말로
오날은날이다-점을엇스니
온나와서이곳에유숙하엿다가
밤새거든쩌납시요.온나가서치사하고
백씨부인맛난사실을말하며
길인도해야주기를간청하니
가다보면연화못이잇는대
그못가에연꽃남기잇습니다
그연꽃남게물으면알길이잇슬것입니다
한데원년강에가거든
웨.내가밤낮글만긁어야하고
이성밧그로외출치못하는지
그리유를물어다가전하야줍시요
날이새여쩌나가다보니
과연연화못가에연꽃남기잇더라
연꽃남글보고,연꽃남아말좀물어보자
어데로가면원년강을가느냐
웬일로원년강을가는고
나는오날이라는사람인데
부모국원년강을차져가노라
반가운말이로구나
그러면나의팔자나알어다주시요
무슨팔자이뇨
나는겨울에는움이뿌리에들고
정월이나면몸중에들었다
이월이되면가지에가고,삼월이나면꽃이되는대
상가지에만피고,달은가지에는아니피니
이팔자를물어줍소
그리고원년강은가다보면.청수아당가에
년하대사가누어서구을르고잇슬터이니가
그대사에게물으면.조흔도리가잇슬것이요
결별하야청수아당가에일으러
이리저리구을르고잇는대사를발견하고
인사를통성하야.경과한사실을토패하고
엇찌하면원년강을차저갈수잇는지

인도하야즙소서.오날이가말하니
길인도하기는어려웁지아니하나
나의부탁도하나드려주시요.대사가말하거늘
그러면그부탁은엇떤것임니가
그것은달음아니라.달은베암들은
야광주를하나만물어도
롱이되여승뎐을하는대.나는야광주를
셋이나물어도롱이못되고잇스니
엇띤면좆켓는가무러다주시요
이리하야오날이는그대사의요구에쌀아서
그등을타안졌다
대사는오날이를등에태워서
헤염을치고그청수아당을넘겨준후에
가다보면매일이라는사람을만날터이니
그사람에게무러보시요
여기서작별하고가다보니
매일이는거번의청의동자모양으로
별충당우에안저.글을긁고잇더라
인사를맛치고.부모국원뎐강의
길인도를청하니.쾌로히승락하고
원뎐강에가서.자괴의항상
글만긁고잇는팔자를무러다달나하고
오날이에게부탁하다
그곳에서일야를유숙하고작별할째
가다보면시녀궁녀가락루를하고잇스리니
그들에게물으면.소원을성취할것이요
매일이가이리말하다
그리하야앞으로앞으로가다보니
아닌게아니라시녀궁녀가늦겨울며잇는데
그리유를무르니.그리유는달은게아니라
전일에는그들이하날옥황시녀엿섯는데
우연이득죄하야.그물을푸고잇는바
그물을다-펴내기전에는
옥황으로올나갈수가업는데
아모리풀야하야도푸는박아지에
큰구멍이뜰버저잇기싸닭에
족음도물을밧그로펴낼수가업는것이였다
그리하야.갓치조력하야주기를

오날이에게청하니.오날이는
옥황의신인이못푸는물을.어리석은인간
으로서엇지풀수잇는야고사퇴를허다가
정당풀을비여모게하고,베게를맨들게하야
박아지의구멍을막고거게다가송진을녹여서
그막은곳을칠하야튼튼히잘르고
정성을다하야옥황상제의계축도를한후
물을푸니.순간에그물이말너붓거늘
시녀궁녀사지에서소생헌듯이광히하며
백배사례하고,오날이가청하는원년강의
길인도는동행하면서하야주겠다고하야
얼마쯤오날이를데리고가던이
엇싼별당이보이였다.시녀궁녀는
오날이가는곳을행복도게하야달라는의미의
축도를하며제갈길로가바리였다
별당을향하야그주위에는만리장성을싸었고
원문에는문직이가파수를보고잇섰다
문을열어달나하니.그것은누구이냐
나는인간세상오날이라는쳐녀이요
무슨연고로이곳에왔는고
이것이나의부모국이라허니찻저왓소
문을열어줄수업노라
문직의거절은넘우나냉정하얗고
가련헌오날이에게는최후의절망인것갓치하야
하날이문허지는것갓텄다
오날이는용기의죄의일발까지를상실하고
안전이암연하야부모국문전에흔도하얏다
지면에복와한오날이는기백만리인간
원방에서쳐녀단지혼자외로히
원갓산과원갓물을건너웬고생격그면서
부모국이라고이런곳을차저왓는데
이러케도박정하게하는구나
이문안에는내부모잇슬연만은
이문압혜내여기왓건만은
매일이는소원성취한다더라만은
원년강신인들은넘우무정타
비인들에홀로이둘든이쳐녀
천산만하님을적에웨로운쳐녀

부모국의문압해웨로운쳐녀
부모는다보왓나.내할일다하얏나
강님갈짜무엇할이.여기서죽자
팔자부탁어찌할이
모든은헤어찌할이
박정헌문직이야.무정헌신인들아
그리웁던어머님아.그리웁던아버님아
오날이는의식적무의식적으로이리말허며
연하야늦겨우니.돌갓튼문직이의염통에도
눈물의동정이울어낫다
문직이가부모궁에올나가서.이런사실을주하니
발서부모궁에서도알고잇셨다
그비명허는소래는
부모에게까지흘러갓든것이다
그리하야문직이가
저의책임으로써문을못열어주었습니다만은
이사실을엿주어드리려왓습니다허니
오날발서다알었다.들어오게하야라
락망의극에잇든오날이
천만의외의히보에숨인가하며
부모의압해를가니.아버지허는말이
엇썬쳐녀가웨이곳에왓느냐하니
학이새짓속에서살든째붓터
지금짜지의지난일을모조리말하야들니였다
부모가괴특하다고칭찬하며
자기자식이분명하다고하얏다
그리하야쪼하는말이
너를나흔날에옥황상제가우리를불러서
원년강을직히라고하니
어느영이라거역할수업서.여기잇게되였스나
항상너의하는일을다보고잇섯스며
너를보호하고잇섯다
이리하야구경이나하라고허니
만리장성둘러싸흔곳에
곳곳마다문을열어보앗다
보니춘하추동사시절이모다잇는것이었다
구경을씻치고,오날이가
쏘다시온길을돌아갈여할째

거번의모든부탁을말하니,부모하는말이
장상이와매일이는부부가되면
만년영화를누릴것이요
련화동은웃가지의꽃을짜서
초면하는사람의게주어버리면
다른가지에도만발할것이며
대사는야광주를일개만물엇스면할태인데
넘우욕심을만히가져서,삼개를물어바리니
룡이못된것이다그러니초면자에게
두개를바터서주어버리면,곳ロン이되리라하고
너도그야광주들과련화를갖으면신녀가되리라
돌아오는길에매일이를맛나
부모국에서들은대로말하니
장상이잇는곳을몰은다거늘
내가데려다주마하고,갓치가다가
대사를맛나서도그사실을말하니
야광주들을바터서,오날이에게주어두고
즉서룡이되야.뢰성벽녁과아울너승턴하얏다
다음에연꽃낭을맛나그런말을하니
웃가지를썩꺼서즉시오날이에게주다
그러니가지가지마다고흔꽃이피여서
아름다운향내를뽑내게되였다
다음에장상을맛나니,매일과장상이
부부가되어차세상에만년영화를누리고
오날이는백씨부인을맛나서
야광주하나를선사하야,감사의꽃을표한후
옥황의신녀로화하얏다
이리한오날이는인간에강림하야
절마다덴기며,원년강을등사하게하얏다

아카바·아카마스, 『조선무속의 연구 上』, 대판목호서점, 1938, pp.467-479.